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여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마태오 22, 21)



오래전에 카이사르라는 황제가 법을 만들고, 로마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돈을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인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답하세요.



예수님께 “ 카이사르에게 돈을 내는 것이 옳은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물어요. “이 동전에는 어떤 그림이 있나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카이사르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만약 이 돈이 카이사르의 것이라면 황제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것을 드리도록 하세요.”



메이 메이라는 중국 어린이의 이야기예요. 저는 6살이고, 오늘 영어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돌려주셨을 때, 저는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을 받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후 선생님께서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셨을 때 저는 한 문제의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좀 당황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상을 받지 못 한다는 생각에 좀 망설였어요.



결국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후에 선생님은 제 성적을 고치셨어요. 엄마가 왜 그랬느냐고 물었을 때 “사랑하고 싶어서요” 라고 답했어요. 엄마는 “잘했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대견해!”라고 하셨어요